□등급외 전용관 설치 논란과 향후 전망

닫힌 골방에서 열린세계로의 마지막 탈출구

▲씨네 21과 뉴남대문극장이 공동주최한 이번 영화제는 등급외 전용관 설립허가 촉진과 에로틱 영화의 형상화된 장르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화라는 매체속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숨어있다. 일상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에서부터 남녀의 사랑이야기까지 종류 또한 다양하다. 우리들은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키워나간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들이 상영이 안된다면 어떨까. 물론 형식이 있는 다른영화들 예를 들어 코미디나 액션 그리고 드라마틱한 영화와는 다른 특이한 장르로 생각되어졌던 '에로틱 영화'에 관한 내용이라면….

올해 초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심의가 위헌 판결을 받은 후 영화계에서는 성인영화 전용관 설립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됐다. 찬성쪽에서는 X등급 판정을 받은 에로영화를 일정한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쪽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내세워 성인영화 전용관 설립을 절대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이 올바른 생각일까.

이에 대해 유지나(영화평론가)씨는 "등급외 전용관은 외국의 포르노와는 달리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제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공간이다."며 "이 전용관은 우리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성인들의 욕구를 일정한 한도내에서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포르노영화에 대한 규제와 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해내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말한다.

등급외 전용관은 외국의 포르노와는 달리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제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영화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등급외 전용관은 무엇이고, 현 사회에서 등급외 전용관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가 있다. '등급외 전용관'이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심의등급 부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영화들을 필름 삭제나 수입불허가 아닌 정상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상영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영화상영장소는 현사회에서는 아직 허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가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영화라면 그 영화를 보고 싶은 소수를 위한 전용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등급외 전용관 설립허가 촉진과 에로틱영화의 형상화된 장르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8일부터 4주간 '등급외 전용관 설립허가 촉진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에로틱영화 축제'를 주제로 '에로영화보기… 당당하게 보기!'라는 표어를 내건 에로영화제가 뉴남대문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씨네 21과 뉴남대문극장이 공동으로 기획했고, 에로영화가 그저 사람들의 훔쳐보기 심리만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다른 영화들처럼 충분한 메시지의 전달이나, 감정이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두가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영화라면 그 영화를 보고 싶은 소수를 위한 전용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는 에로티시즘과 정치라는 주제로 '퍼블릭우먼'과 '비엔나호텔의 야간배달부'가 상영됐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에로티시즘과 비 정상성이라는 주제로 '파리 프랑스', '하몽하몽'을 22일부터 28일까지는 에로티시즘과 포르노란 주제로 '올레이디 두 잇', '8요일의 여자'가 그리고 마지막 주인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에로티시즘의 고전이라는 주제로 '끌로드 부인',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가 상영된다. 또한 행사기간 중에는 등급외 전용관 설립 허가 촉진 서명운동도 함께 이루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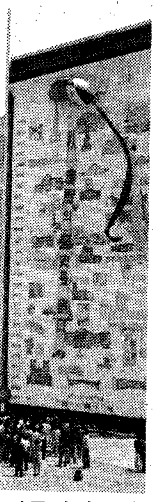
에로티시즘. 이는 영화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장르이다. 그러나 우리사회 풍토는 이러한 성문화에 미숙하다. 이번 영화제는 조금만 벗어도 검열이라는 제도에 비난을 받는 우리영화의 문제점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들의 참여가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영화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완전등급제를 인정한다면 등급외 전용관 설치의 찬,반 논란은 사라질 것이다.

〈김동혁 기자〉

경희 유산 시리즈

⑱ 자연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의 모습

최근 들어 산업정보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자연환경을 접할 기회가 점차 적어 지고 있다. 이에 자연사박물관은 도심 속의 자연학습장으로서 그 역할과 의미가 매우 크다. '문화세계의 창조'는 경희의 창학 이래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념이다. 자연사 박물관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상생적 관계를 성립시키도록 하는 역사의 흐름을 선도한 경희의 노력의 소산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자 문명이 자연과 인간사이의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형성하는데 봉사해야 할 시기이다. 자연사 박물관에는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나가고있는 경희인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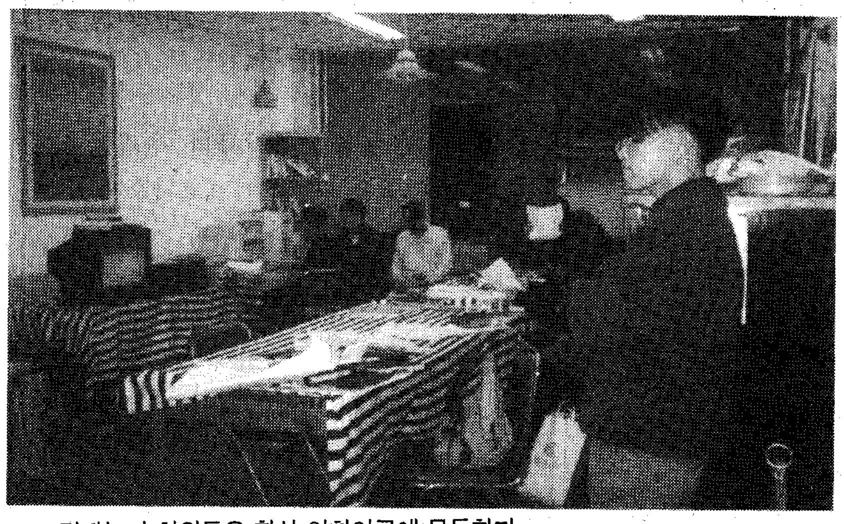
건립 당시 동양에서 최초이며 유일하던 자연사 박물관(1978. 6)은 총건평 565평의 6층 건물로 5만여점의 소장품 중에서 1만6천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은 암석과 광물, 화석류가 전시된 광물암석관, 포유동물과 조류 및 외국의 표본이 전시된 포유조류관이 있고 한국조류관, 곤충류관, 어류관, 식물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세계에서도 찾아 보기 어려운 쌍두서룡이 2점 있으며 9개국에서 수집된 174종 518점의 나비류는 생태적 전시를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각 관을 오르내리는 계단 벽면에는 우주의 생성에서 부터 생물의 탄생, 인간의 출현, 인류문명사를 그린 벽화가 있다. 이는 단편적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보다 우주와 인류를 함께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사박물관에서는 자연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 조사와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여 일반에 공개하기도 하고 자연연구의 지도와 교육 및 자연 보호 교육으로도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 일 환 〈중앙박물관 연구실〉

캠퍼스 예술인 □영화동아리 '그림자놀이' 회원들

거침없는 창작의 표현, 그들의 열정에는 한계가 없다



▲그림자놀이 회원들은 항상 영화연구에 몰두한다

어릴 적, 불빛을 등에지고 '그림자놀이'를 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양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할 뿐이지만, 그것은 새가 되어 날기도 하고 강아지가 되어 짖기도 한다.

그림자를 통해 만들어 내는 이야기. 독특한 시각과 숨은 끼로 바라본 세상을 스크린의 그림자로 표현하는 이들을 만나러 서울캠퍼스에 있는 '그림자놀이'라는 영화동아리를 찾아가 보았다.

"일정 틀 없이 그때마다 누군가 툭 던진 얘기를 주제로 하죠. 규제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그들은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상상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보여주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장르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27회 창작영화제의 상영에 대한 기대는 더욱 남다르다. '그림자욕망분출'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그들은 기존의 영상매체에서 다루지 않는 민감한 부분도 과감히 카메라에 담았다. 공포물, 멜로물, 심지어 에로물까지 장르도 다양하다.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검열로 인한 창작의 자율성 차단에 대해 반기라도 드는 듯 그들은 필요한 장면에 대해서는 어떠한 삭제도 거치지 않았다.

이렇듯 무서울 것이 없는 그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자신들의 열정에 비해 기자재와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 5분에서 10분정도의 16㎜영화를 찍는데도 3백만원가량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면이 바뀔때마다 기자재를 모두 들고 옮겨야 하기 때문에 영화를 한 편 찍으려면 튼튼한 체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품은 없어요, 영화마다 제작과정이 달랐던 만큼 각기 다른 추억이 있었기 때문이죠"라며 영화를 만들어 가는 순간들이 힘겹기도 하지만 완성된 필름을 볼 때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인터뷰사진을 찍을 때도 그들은 카메라만을 주시하며 있어야 하는 상황은 어색하다며 평소의 모습 그대로 보여 주기를 원했다. 그러한 자유로운 사상들이 만들어 낸 열린영화를 앞으로도 자주 볼수 있길 바란다.〈김현종기자〉

문화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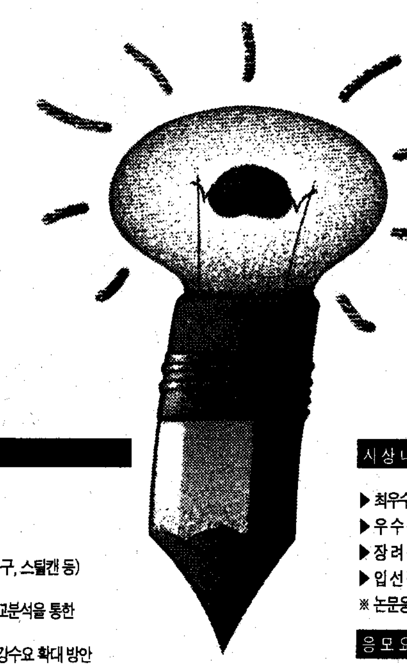
카톨릭학생회 정기총회 서울 캠퍼스 가톨릭학생회 '프란시스코'는 오는 21일 학생회관 3층 '여백'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실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24기 신임회장단 선거와 97년 행사의 결산 등이 있을 예정이다.

그림자놀이 창작영화제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중앙 도서관 시청각실에서는 제27회 그림자놀이 창작 영화제가 열린다. 이 영화제에서는 '키즈', '스크림' 등의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와 자체 제작한 5편의 16㎜필름이 선보이며 작품은 오후1시, 3시30분, 6시에 상영된다.

파인더 정기 전시회 사진동아리 파인더가 14일부터 17번째 정기전시회를 갖는다. '시공(時空)'이라는 주제로 벌어지는 이번 작품전은 14일부터 16일까지 명동유네스코회관 10층에서, 그리고 교내 전시회는 34점의 개인작품과 '얼굴'이라는 주제전(10여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제 4회 POSCO 철강논문상 현상공모

철강산업의 미래 -
창조적 아이디어로 밝혀주십시오



세계속의 철강한국을 이끌어온 포항제철이,
철강산업의 미래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상상력 풍부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논문주제

응모분야를 대주제로 하여 논문주제는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

▶ 새로운 철강수요 창출 분야
예제) ● 강재이용 신기술(스틸하우스, 철골조건축, 강교량, 금속가구, 스틸캔 등) 조기 확산을 통한 새로운 철강 수요 창출 방안
● 철강 경쟁소재(알루미늄, 플라스틱, 콘크리트 등)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철강재 소요 확대 방안
● 글로벌 마케팅 체계구축을 통한 한국 철강산업의 해외 철강수요 확대 방안

▶ 철강이미지 개선 분야
예제) ● 철강이미지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매체 활용방안
● 대학생들의 의식구조 분석을 통해본 철강산업의 이미지 제고방안
● 철의 우수성 및 유용성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안

▶ 환경보전을 위한 철강산업의 과제 분야
예제) ● 국제환경규제(기후변화협약 등)에 대한 철강산업의 대응 전략
● 철강산업의 청정기술(Cleaner Technology) 개발 전략
● 철강산업의 폐기물 최소화(Waste Minimization) 방안

시상내역

▶ 최우수상 : 1편 (상장 및 부상 1000만원)
▶ 우수상 : 1편 (상장 및 부상 500만원)
▶ 장려상 : 2편 (상장 및 부상 300만원)
▶ 입선작 : 3편 (상장 및 부상 100만원)
※ 논문응모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응모요령

▶ 응모자격 : 국내외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전공불문)
▶ 논문분량 : A4용지 20매 내외, W/P 작성 (논문요약본 3~4매 별도)
▶ 제출기간 : '98. 2. 9(월) ~ 2. 27(금)
▶ 제 출 물 : 논문 및 논문요약본, 재학증명서, 자기소개서 (A4용지 2매 내외)
▶ 제 출 처 : (135-777)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2 포스코센터, 포항제철 인력팀
▶ 제출방법 : 우편접수 (직접접수 가능)
▶ 기 타 : 응모작품은 창작물로서 미발표 작품이어야 함
입상논문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음
기타사항은 포항제철 인력팀으로 문의바람 (☎02-3457-1600)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

대학인과 함께한 21년 - 유니큡 가족 unicoop

취 업? 쉬~워!

7월11일부터 OPEN

한국대학신문 취업정보서비스
· 취업정보자동안내(ARS) : (02)700-9111
· PC통신(Uni-World) : 01410 또는 01411 접속후 "unicoop"
· 천리안 : 천리안 접속후 "go cif"
· 인터넷 : http://www.unicoop.co.kr

불건전정보신고 : 080-023-0113/정보이용료 : 30초 80원, 3분 480원/T 276-1100(한민네트워크 제프컨설팅)

한국대학신문
엘리트뱅크
멀티미디어센터
Tel (02)276-1100